

우리모두 히브리 5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4장마지막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는 우리의 큰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히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 인 것입니다.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함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게는 큰대제사장이 있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제사장에게는 직무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일이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죄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접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물을 가지고 그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후에 밖으로 나와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타 내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 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없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오늘날 변했습니다.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오늘날 유대인

들은 중보 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이유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지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 갑니다”그래서 수년을 걸쳐서 그들의 마음 상태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말씀을 기록할때는 유대인들의 마음상태는 죄인이 하나님께 전혀 접근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접근 하고저 시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접근 할수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만이 할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갈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p>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때에 무의식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할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W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 할수 있으며 우리에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그들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는 것입니다.</p>
<p>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반대가 일어날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수있단 말인가? 우리는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 대답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을 7장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p>
<p>제사장직은 레위지파의 계통으로 통해서 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제사장 직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주워지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p> <p>예수님은 레위지파에 속하지도 않고 레위지파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의계통이 레위지파 계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p>
<p>5장</p>
<p>5:1 대 제 사 장 마 다 사 람 가 운 데 서 취 한 자 이 므 로 하 나 님 께 속 한 일 에 사 람 을 위 하 여 예 물 과 속 죄 하 는 제 사 를 드 리 게 하 나 니</p>
<p>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타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나아갈수 없습니다. 나는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제물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 합니다.</p> <p>그러면 제사장은 그희생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죽이고 그는 나를 위해서 그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p>
<p>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 앞세 나올수 있도록 임명된 것입니다.</p>
<p>5:1 대 제 사 장 마 다 사 람 가 운 데 서 취 한 자 이 므 로 하 나 님 께 속 한 일 에 사 람 을 위 하 여 예 물 과 속 죄 하 는 제 사 를 드 리 게 하 나 니</p> <p>5:2 저 가 무 식 하 고 미 혹 한 자 를 능 히 용 납 할 수 있 는 것 은 자 기 도 연 약 에 싸 여 있 음 이 니 라</p>

<p>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취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죄인이나 참회하는 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수 있습니다.</p> <p>왜냐하면 자기자신도 그러한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p>
<p>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실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주흥미로운 일입니다.</p> <p>그는 직접 하나님께 접근 할수도 없습니다.</p> <p>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본다음 그후에 와서 나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릴수 있습니다.</p>
<p>5:3 이 러 므 로 백 성 을 위 하 여 속 죄 제 를 드 림 과 같 이 또 한 자 기 를 위 하 여 드 리 는 것 이 마 땅 하 니 라(히 5:3)</p>
<p>그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 올뿐만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p> <p>그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입니다.</p> <p>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p>
<p>5:4 이 존 귀 는 아 무 나 스 스 로 취 하 지 못 하 고 오 직 아 론 과 같 이 하 나 님 의 부 르 심 을 입 은 자 라 야 할 것 이 니 라</p>
<p>이것은 “내가 이제 대제상이 되겠다”라고 하여 되는 것이 이닙니다.</p> <p>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명예로운 직분이 아닙니다.</p> <p>이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세우시는 것입니다.</p> <p>불행이도 이직분이 정치적인 직분이 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이것은 모든 제도가 실제로 퇴락되고 영성이 결핍된데 대한 고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p> <p>사람이 만든 기관은 높은 지위를 세워놓고 원래의 의도인 영적인 개체보다 더 저질로 퇴락된 정치적인 기관으로 퇴락하는 것입니다.</p> <p>오늘날 대부분의 큰교파의교회의 문제들은 영적인 단체라기 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가 된 것입니다.</p>
<p>그래서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사와 예물을</p>

<p>드리게 하신 것입니다.</p> <p>그는 자신이 같은 사람임으로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p> <p>그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p> <p>이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스스로 취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는 사람이 자의로 직업으로써 취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회에 종사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p> <p>교육의 양에 따라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p> <p>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울수는 없습니다. 비숍이 나에게 손을 얹었다고 해서 목회에 임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p> <p>목회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존귀가 아닙니다.</p> <p>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p>
<p>5:5 또 한 이 와 같 이 그 리 스 도 께 서 대 제 사 장 되 심 도 스 스 로 영 광 을 취 하 심 이 아 니 요 오 직 말 씀 하 신 이 가 저 더 러 이 르 시 되 너 는 내 아 들 이 니 오 늘 날 내 가 너 를 낳 았 다 하 셧 고</p>
<p>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인 지위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p>
<p>5:5 또 한 이 와 같 이 그 리 스 도 께 서 대 제 사 장 되 심 도 스 스 로 영 광 을 취 하 심 이 아 니 요 오 직 말 씀 하 신 이 가 저 더 러 이 르 시 되 너 는 내 아 들 이 니 오 늘 날 내 가 너 를 낳 았 다 하 셧 고 또 한 이 와 같 이 다 른 데 말 씀 하 시 되 네 가 영 원 히 벨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쫓 는 제 사 장 이 라 하 셧 으 니(히5:5-6)</p>
<p>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네가 영원히 벨기세텍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p>
<p>5:7 그 는 육 체 에 계 실 때 에 자 기 를 죽 음 에 서 능 히 구 원 하 실 이 에 계 심 한 통 곡 과 눈 물 로 간 구 와 소 원 을 올 렸 고 그 의 경 외 하 심 을 인 하 여 들 으 심 을 얻 었 느 니 라(히5:7)</p>
<p>이말씀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구원하실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과 강한</p>

통곡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하기를 “12: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때에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피방울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26:39 조금 나아가 사알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가는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수만 있으면 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수만 있으면 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구속이 십자가 이외의 다른길이 있다면 아린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속할수있다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속될수있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신실함으로 구속을 얻는 길이 있다면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잔은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사람이 구속이나 구원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죽음에서 구할수 있었고 또 그 기도도 들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들어셨고 그의 기도도 들어 셧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는기도로 끝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해서 그관계를 인지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차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이신이가 아버지였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피하려할때에 아버지의 뜻의계획을 오지부동하게 견지하신 분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아버지는 노하여 원수를 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옥유황불에 던질 준비가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의 품으로 영접하시고 또한 사권을 갖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수치스런 죽음으로 가게 하시는 극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개이치 아니하시고 단행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떤것보다 우리와 사권을 가지시기를 심히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시고 그가 원하는 데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도할때에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땅위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져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마음대로 갖도록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신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사람 들은 기도를 그러한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안으셨냐? 누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p>제자가 되는 자격이 무엇인가? “이 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16:24).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며 가진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위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는 말씀을 놓아 보십시오.</p> <p>이러한 제자들에게 엷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p> <p>내가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다면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나의 육신적인 어떤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 구하게 될것입니다.</p>
<p>그러나 나는 자주 기도가 변합니다. 내가 만일 어떤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도하기를 “오 주님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할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주님 내게 그것이 꼭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p>
<p>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p>
<p><i>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5:8)</i></p>
<p>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는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p> <p>그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p>
<p>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 나는 부활의 능력과 그를 알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를 알고 그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p> <p>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울 사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능력을 원합니다. 나는 영광을 원합니다. 나는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구요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p> <p>“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p> <p>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나의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p>

<p>내가 어떤장소보다 고난에서 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군사와 같이 고난을 견딜때에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p> <p>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한 것을 수락할때에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p>
<p>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 지어다 (벧전4:19)</p> <p>하나님 저는 고난 당하는것 원치 않습니다 이계획은 제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함보다 하나님 주님 제가 필요하 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모두아 십 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려 순종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고통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보다 더욱큰 믿음 이 필요랍니다.</p> <p>나는 하나님께나의 뜻에 따라 주실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이러한 태도로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 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p>
<p>온 전 하 게 되 었 은 즉 자 기 를 순 종 하 는 모 든 자 에 게 영 원 한 구 원 의 근 원 이 되 시 고(히5:9)</p>
<p>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근원)이요 그리고 우리믿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고했습니다.</p> <p>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p> <p>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p> <p>만일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것입니다.</p> <p>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p>
<p>5:10 하 나 님 께 뉘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은 대 제 사 장 이 라 칭 하 심 을 받 았 느 니 라 5:11 뉘 기 세 텍 에 관 하 여 는 우 리 가 할 말 이 많 으 나 너 희 의 듣 는 것 이 든 하 므 로 해 석 하 기 어 려 우 니 라</p>
<p>이제 유대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게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로 부터 깊이 뿌리 박힌 전통이 있었습니다.</p>

그들의 모든 평생을 통해서 성전에 가는 것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좋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그의가 르침을 따라갈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 해서 제물을 바쳐야할지 그리고 성전에서 경배도드려야 할지 어떻게 할줄을 몰랐읍 니다.

그래서 그들은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에 대해서 더자세히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하면서 그는 7장에서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더자세히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말이 많으나 너희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라고 말했습니다.

5:12 때 가 오 래 므 로 너 희 가 마 땅 히 선 생 이 될 터 인 데 너 희 가 다 시 하 나 님 의 말 씀 의 초 보 가 무 엇 인 지 누 구 에 게 가 르 침 을 받 아 야 할 것 이 니 췌 이 나 먹 고 단 단 한 식 물 을 못 먹 을 자 가 되 었 도 다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었고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발전함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은 그들이 나가서 다른사람을 가르치는 일을해야 할것인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병만 마시고 있다고했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때가 되었는데도너희들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발전의 정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내에서 영적성장의 중단이 가장 보편적인 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지만 어느수준에서 발전없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25년전에 말하던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들은 2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성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보면 아직도 우유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를 재미있게 하세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하프도 치고 뭐 재미있는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단단한 음식을 맛보고 나면다시는 우유병으로 만족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나가서 옛날 마시던 우유를 그리워하여 마시보지만 그들은 더이상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단단한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나면 옛날 초보적인 우유를 마시던 시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5:13 대 저 젓 을 먹는 자 마 다 어 린 아 이 니 의 의 말 씀 을 경 험 하 지 못 한 자 요

바울은 고린도서신에서 육신적인 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걸려있는 병이 영적성장의 정지 상태입니다.

5:14 단 단 한 식 물 은 장 성 한 자 의 것 이 니 저 회 는 지 각 을 사 용 하 므 로 연 단 을 받 아 선 악 을 분 별 하 는 자 들 이 니 라

말씀에서 자라면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우유에 속하는 일시적 반짝하는 교리에 대해서 근방 분별을 할수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신은 “여보시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사탕같이 달콤하나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할것입니다.

옆에있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흥분되는 말에 대해서 “오 이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놀랍다” 감탄을하지만

이것은 마치 솜사탕과 같아서 즉시 녹아 내리고 참으로 몸에 영양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6 장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6: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구원이나 구속 같은 교리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숙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걷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나의 목회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설교자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격의 위치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멧세지 마다 나는 복음주의적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있는 교단이 이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일 그년에 사람의 수가 많지 않으면 비숍이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전도를 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갈등에 빠져있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설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중생한 자에게는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가르치는 선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설교만 한다면 교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성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구원 얻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해야 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만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때까지는 그들은 결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수 가 없습니다.

초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항상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교리에서 떠나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한것을 계속 반복할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쌓아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4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성경구절은 사탄이 자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움 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4: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을 이루셨다. 성경말씀을 본문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른 뜻으로 될수 있다. 성경말씀을 취하여 본문의 원뜻에서 벗어나 격리하여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뜻이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사람이 실수 하고 심지어는 참람한 말을 한다할찌라도 아직도 용서

받을수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합니다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을찌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닭이 두번울었을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세번 부인한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나는 그사람을 모른다”라고 참람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함을 받았고 초대교회에 기둥이 되었으며 사도로써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하시거나 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참 으시 는 하나님이신줄 압니다. 그는 인내하시며 우리의 행한 악을 따라 갚지 않으심도 우리가 압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높습니다.

사탄은 자주 타락한자에게 이러한 성경구 절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이사람아 너는 이제 끝이야 히브리서에서 말하것을 보느냐? 너는 이제 희망없어 너는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구원얻을 희망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구절에 대해 서 사람들 찾아와서 카운슬링을 요구하 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용서 받지 못할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우리는심지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전화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믿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찌 아십니까?”라고 물으면 “왜냐하면 당신이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용서받지 못할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전화도 걸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할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 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고 차가워 당신이 행한일 에 대해서 아무자책도 없고 무관심할것입 니다.

당신의 행한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 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당신에게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구절을 사용하기 를 좋아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죽도록 치는 것입니다.

이말씀을 아래와 같이 암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유대종교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간 유대인 들에 게 쓴 글로써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옥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전혀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이말씀은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미루어 볼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란 말씀은 나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다른 밭에 떨어지 씨에 대해서 그라치신 말씀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짜밭에 가시밭에 더러는 옥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멎어버렸고 이것은 사탄이 와서 즉시 없애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뿌리가 결코내려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작용도 반응도 없는 사람들을 볼수있습니다. 땅이 굳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못합니다.

그리고 돌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짜밭 위에 흙이 알팍해서 싹이 빨리 솟아 나옵니다. 바위위가 되여서 따뜻하고 좋아 싹이 속히 돋으나 해가 뜨서 뜨거운 햇빛이 쬐이면 흙이 깊지 못해 뿌리를 내릴수가 없어 근방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우에 행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흥분되어 예수님께 한동안 큰관심과 열심을 내다가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어 조그마한 폭풍아니 뜨거운 햇빛이 비칠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깃발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나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성장은 하나 그들의 생활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본문에서 내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본문이 무슨뜻을 가지고 있다는 영광스런 숨겨진 계시를 말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아 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밤내가 아는 것은 당신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되었든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께 나아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쫓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말씀은 당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께 로 오기를 원치 않으며 또 오지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말씀이 당신에게 적용 될것입니다.

<p>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자리도 없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p> <p>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교회 나간적이 있고 그곳에 앉아서 찬송도 불렀고 했지만 이제 그런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말한 구절일 것입니다.</p> <p>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맞난적이 있을것입니다.</p> <p>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맺고져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구 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p> <p>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굳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구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p> <p>그러나 만일 굳어 있다면 아주 염려해야 할 문제 인 것입니다.</p>
<p>6: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p> <p>6: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p>
<p>그래서 다시금 씨뿌리는 농부와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p> <p>채소를 내는 씨도 있고 과일을 내는 씨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땅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p> <p>좋은 땅이 밭을 잘가꾸워서 씨를 뿌린자에게 좋은 채소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p> <p>그러나 땅이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농부는 그것을 밟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p>
<p>이제 저자는 제가 믿기는 바울이라 생각되는데 저자인 바울은 말하기를</p>
<p>6: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 하노라</p>
<p>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것을 확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p> <p>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특별한 저주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했습니다.</p>

<p>6: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p>
<p>6: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p>
<p>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또 영적 성장이 중지 되고 타락하여 넘어 진다할찌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p> <p>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십니다</p>
<p>6: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p>
<p>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 하십시오 그리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입니다.</p> <p>소망의 풍성함이란 아주 영광스런 것입니다.</p> <p>나는 구원의 소망에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나 의문이나 불확신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안에 영원히 거한 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수 없게 될가 하는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p> <p>나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p> <p>나는 그러한 것들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았 습니다. 오랜 세월을 저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그때 보다 더욱 확 신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인식합니다.</p> <p>왜내가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나 모든 것이 나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p>내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결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수가 없었습니다.</p> <p>“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구원을 잃을수 없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p>

<p>저는 주님을 겨로 버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p> <p>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와함께 동행할 것입니다.</p> <p>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결코 뒤돌아 서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개념이나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이유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원의 풍성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p>
<p>6:12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p>
<p>이제 이러한것은 나를 게으르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바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p>
<p>6:12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p>
<p>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것은 어떤 것이라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도 귀한 약속입니까?</p> <p>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작은 약속의 말씀구 절을 담은 통이 있을줄 믿습니다.</p> <p>그기서 약속의 말씀이 담긴 구절을 뽑아 읽어 보면 너무도 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좋아 합니다</p> <p>이하나님의 약속의말씀을 읽을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집 벽에다 붙이기도 합니다.</p> <p>오랫동안 우리 딸의 방의 벽에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41:10)</p> <p>밤에 두려워하는 어린 딸의 방의 벽에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것은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일가.</p> <p>“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p>
<p>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p> <p>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4: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흑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4:10).</p> <p>하나님께서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있지만 우리가 그약속을 받지못함고</p>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서 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 드리면 됩니다.”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야곱이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을때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외삼촌의 두딸과 거기서 봉사하며 얻은 소와 양떼들을 모두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야곱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의 작은 신상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많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를 맞나느 전날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하시기를 “그에게 손을 데지말라고 하시며 손을데는 날에는 너에게 큰벌이 임할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였으나 그전 날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데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감히 손을 데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말로써 공격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렀을때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재산을 모두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17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나의 임금을 열번이나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취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때에 라반은 말하기를 너는 나의 딸들을 말없이 뺏아 갈 뿐아니라 손자들에게 작별키스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소와 양떼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너의 나의 신상까지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도둑당할수있는 신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나 그들이 이와같이 흥분할때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함을 볼수있습니다.

그들은 곧 옷속에 숨겨놓은 단칼을 뽑아 들고 찌를듯한 분위기 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분위기를 대강 짐작할수 있을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힘든 날이였고 맥 다빠졌을 것입니다.

라반이 떠나자 마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온자가 말하기를 “당신형인 에서가 2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을 맞으려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할때에 야곱은 형인 에서와 마지막 접견에서하는 말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죽이고

말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2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적인 두려움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며”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을때에 내일당하는 일이 고통스러울때에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여 2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올때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보일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함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약속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그리고 둘째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두가지를 간직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것과 그를찾는자에게 반드시 상주심을 믿어야 할찌니라”라고 했습니다.(히11;6)/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하실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행 하실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하나님임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기도할때 즉시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때에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해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그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속에서 믿음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선진들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실때까지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있는 것입니다. 그약속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 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히6:13-14)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약속을 맹세하엿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써 그약속을 기다렸읍니다 결국은 그약속을 받았읍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35년이상을 기다렸읍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너무 나 인내심이 없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한주간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그가 인내로서 기다린후에 그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한데로 한 아들을주셨읍니다.

불가능이란 말은 우리가 상요하고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일에 처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개입하게하시면 그곳에 불가능이란 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p>실제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질 일 전혀 업읍니다. 어떤것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 개입되는 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제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p>
<p>어렵다는 것은 항상 그일을 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말인 것입니다.</p> <p>“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자”라 말하면 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반석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 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p> <p>어려운 일이 전혀 없읍니다. 주님은 하실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p> <p>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당신을 어렵다는 말을 빼여 버려야 할것입니다.</p> <p>만일 내가 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것입니다.</p> <p>그래서 내가 감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나의 재능도 믿지를 앓는 것입니다.</p> <p>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때에 나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란 말을 제거 할수 있습니다</p> <p>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능가하여 풍성히 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p> <p>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써 기다려 약속을 받았읍니다. 불가능이 현실화되었읍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p>
<p>저는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고생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했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나는 “저사람은 구원을 얻기에는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p> <p>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불가능은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집니다.</p>
<p>사 람 들 은 자 기 보 다 더 큰 자 를 가 리 켜 멩 세 하 나 니 멩 세 는 저 희 모 든 다 투 는 일 에 최 후 확 정 이 니 라(히6:16)</p>
<p>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p> <p>“내가 그것을 할것을 당신에게 약속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p> <p>“제가 하겠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읍니까?”여기서 내가 그것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가 다투고 있다”</p>

마지막에 내가 “이사람아 내가 성경을 두고 내가 할것을 맹세한다”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라고 그논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맹세란 그러한 논쟁을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 “예 네가 했다” “아니 하지 않았서”라고 논쟁하다가 “내가 지금 하지않았다고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좋아 내가당신이그것을 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것을두고 맹세 하는 것이다.

내가 아침시간에도 말했듯이 내가 오늘밤 그곳에 갈것을 나의 고양이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보다 못한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다 콧자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맹세하는 것이 아주 큰일들중에하나 였는데 맹세할때에 어느것은 지켜야 하고 어느것은 아니지켜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맹세는 아니지켜도 되지만 만일 제단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맹세할때에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제단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맹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아닌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 합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맹세를 전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되며 당신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으로 그사람을 증명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한말에 대한책임을 지면 됩니다.”

맹세하는 목적은 논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부를 논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맹세함으로 논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맹세를 할때에 좋습니다. 그것으로끝을 맺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p>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약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p>
<p>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변치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다른 말을 하여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되돌이키지 않습니다.</p> <p>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p> <p>하나님의 속성이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p> <p>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의 모사의 불변하심이 그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의 모사는 그의 말씀이요 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써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p>
<p>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p>
<p>하나님의 두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늘나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35)</p>
<p>맹세가 두번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모사를 확인하는 맹세를 하시면 이제 당신은 두가지 변할수 없는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p> <p>한번 맹세를 하면 변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어겨 다른 말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당신이 맹세를 한번하면 후퇴할수 없고 지켜야 합니다.</p> <p>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것을 선언하시고 맹세 하셨습니다 “ 내가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보다 더 큰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당신은 두가지 변할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p> <p>하나님께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결과는</p>
<p>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p>
<p>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p>

<p>하셨습니다 고로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말씀대로 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피난처인 그곳으로 도망합니다.”</p> <p>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할작정인가? 다음주에 또와서 집세를 독촉할터인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것인가?”라고 말할때에 여기가 내가 도망할 피난처인 것입니다.</p> <p>“여보게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영광의 부에따라 나의 모든 필요한것을 채워주신다네 집세넬돈이 올것이네”라고 강한 위로가 될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 합니다.</p> <p>그말씀을 읽고 또일고 또 읽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약속의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피할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p>
<p>어려운 문제를 직면할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야곡의 말씀을 당신의 문제점에 적용하십시오</p> <p>그리하여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겁을 줄때 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도망하기 바랍니다.</p> <p>마음이 상하고 곤할때 우리앞에 놓여진 소망의 피난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p>
<p>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안에 들어가나니</p>
<p>나의 영혼이 여기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다른곳으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p> <p>나의 영혼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p>
<p>6: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안에 들어가나니</p>
<p>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영광스런 찬송시가 있습니다.</p> <p>“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소망의 닻이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p> <p>굳건한 반석위에 닻을 내렸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의 사랑안에 깊게 굳게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 나의 영혼의 닻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파선되지 않습니다.</p> <p>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위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p>
<p>휘장안에 들어 가나니)6:19하)</p>
<p>나는 하나님의 임재앞에 즉시 나아 갑니다.</p> <p>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p>

<p>나아 갑니다. 회장안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즉시 나아갑 니다. 왜냐하면 예췌서 통로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p> <p>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제단에 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회장안에 아버지가 계신곳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의 하신 말씀에 굳게 섭니다.</p>
<p>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p>
<p>다음주 7장에들어갈때레위지파를 통한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직을 비교하여 공부할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월등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다음 10장까지 이말씀이 계속 됩니다. 다음주에는 8장과9장을 공부하겠습니다</p>
<p>당신의 영혼이 오늘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안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입니까? 그말씀에서 큰위로와 안위와 확신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유산받게 하셨으니 이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약속을 받게 하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p>
<p>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액 임하시며 날마다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며 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축원 합니다. 이번주에도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원 합니다.</p> <p>믿음의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랑과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기원 합니다.</p> <p>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닭아 알게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모든 풍성함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하신 축복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넘치기를 축원하오며예수님의 이르몽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p>